

노동, 저축, 나눔의 윤리에 대한 실증적 고찰 -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윤종인**

논문초록

노동, 저축, 나눔의 윤리는 현대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여러 문헌들은 노동, 저축, 나눔의 윤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존 웨슬리는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저축하며, 더 많이 기부하는 것이 기독교 경제윤리라고 말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독교인의 노동, 저축, 나눔 행위에 대한 실증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이 제공하는 1990~2014년 가계동향조사의 미시자료(MDSS)를 이용하였는데, 통계청 자료는 종교를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종교활동가구 전체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실증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첫째, 종교활동가구의 노동과 저축활동이 비종교활동가구에 비해 활발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활동가구의 나눔활동은 비종교활동가구에 비해 표본 전 기간에 걸쳐 유의하게 더 활발하였다. 결론적으로 나눔의 윤리는 유효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노동과 저축의 윤리는 그렇다고 보기 어려웠다.

주제어 : 노동, 저축, 나눔, Mood의 중앙값 검정

* 이 논문은 2016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부교수

2016년 7월 16일 접수, 8월 8일 최종수정, 8월 24일 게재확정

1. 서론

최근 경제윤리에 대한 관심은 높다. 2008년 미국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최근의 높은 관심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윤리는 선호체계(preference relation)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모든 경제주체들은 주어진 선호체계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따라서 윤리가 바뀐다면 (선호체계가 바뀐 것이므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경제주체들의 행위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윤리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근본적이다.

경제윤리에 관한 논의는 경제생활 전반을 다루는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98년에 발간된 경제학 대사전은 경제윤리에 대해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경제생활을 함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지켜야 할 경제도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박진근 편, 1998). 즉 경제윤리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란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기독교경제윤리에 대하여 정리한 황의서(2003)만 하더라도 그 대상이 경제생활 거의 전 분야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돈과 상품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분배, 무역, 환경, 광고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윤리에 대한 기독교의 역할에 주목한다. Weber(1920)는 자본주의 형성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제가 현재에는 유효하지 않을까? 최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면, 그리고 윤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근본적이고 방대한 것이라면, 또한 기독교가 매우 강력한 윤리로 작용할 수 있다면, 기독교경제윤리는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기독교경제윤리는 경제학자와 신학자 모두의 관심사였다. 강원돈(2005)과 이재율(2005)은 노동윤리에 대해 분석하였고, 이혁배(2012)는 나눔이라는 문제를 다루었다. 박정윤(2006)은 다루기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즉 재무관리분야에서 기독교윤리를 설명하면서 이를 교육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황봉환(2003), 황의서(2003, 2014)는 경제윤리 전반을 다루었다. 경제윤리의 문제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려는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본 연구는 198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뷰캐넌(James Buchanan)의 입헌경제학(Constitutional economics)에 주목한다. 스스로를 테네시 출신의 장로교도라고 지칭하며 청교도적 윤리를 강조한 그는 근검절약하는 청교도적 윤리만이 경제변영의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한다. 뷰캐넌은 “캘빈과 그 추종자들은 다음과 같이 자문자답했을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태도란 어떤 것이며, 또 그것에 기초한 행동변화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내가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면 도의적 윤리적 규범이라고 답할 것이며, 그것은 후세대에 의해 ‘청교도적 윤리’라고 불릴 것이다(Buchanan, 1994: 117-118)”라고 말한 바 있다.

경제윤리에 대해 논의할 때 뷰캐넌의 접근법은 매우 유용하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의 선택을 다룬다면, 그의 입헌경제학은 제약조건 자체의 선택을 다룬다는 점에서 독자적이다. 그가 말하는 제약조건에는 자연적 조건, 역사적 조건, 정치적 조건, 법과 제도적 조건, 관습과 과거의 선택의 조건 등이 포함되는데, 이를 통하여 헌법의 구성에 대해 논의한다. 헌법의 구성요소를 논의함에 있어 4가지 구성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중 첫째 구성요소가 공동체의 구성원의 행위를 규율하는 종교적 규율, 전통적인 도덕률, 법규범이었다.

뷰캐넌에게 있어 기독교윤리란 제약조건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본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는 사명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즉 “소위 ‘청교도적 윤리’라는 가치에 의해 시장참여자들의 행동이 제약을 받는 경제가 더 생산적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은 이러한 규범의 틀을 생산, 분배 및 교환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또한 그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을 것이다(Buchanan, 1994: 120-121)”라고 말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독교경제윤리의 일부를 다루고자 한다. 실증연구를 수행할 경우 연구대상을 국한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윤리의 문제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을 구체화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노동, 저축, 나눔의 윤리를 선택하였다. 이 중 나눔의 윤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 왔다. 하지만 노동과 저축의 윤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가 굳이 노동과 저축의 윤리를 다루려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 Buchanan(1994)은 경제윤리 중에서 노동과 저축의 윤리를 애써 강조했는데, 이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우선 본 연구는 노동, 저축, 나눔에 대한 기독교적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기독교인은 더 많은 노동, 저축, 나눔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이다. 이에 따르면 성경은

더 많은 노동, 저축, 나눔을 명령했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기독교인이 더 많은 노동, 저축, 나눔을 실천했는가에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기독교인의 노동, 저축, 나눔이 더 많이 실천되었는가를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II절에서는 노동, 저축, 나눔의 윤리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고찰하기로 한다. III절에서는 자료와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IV절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종교활동가구와 비종교활동가구의 비교를 통하여 노동, 저축, 나눔의 실천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끝으로 V절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노동, 저축, 나눔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노동의 윤리

창세기 3장 17일에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라는 구절이 있다. 이처럼 성경에는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꽤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노동이 타락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앞선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언급함으로써 노동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어쨌든 노동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은 욥기 등 여러 곳에서 언급되어 있다. 신약에서 바울은 노동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우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살전 4:11)고 말함으로써 노동을 명령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롬 2:6)라고 말함으로써 노동에 따른 대가가 다를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엡 4:28)고 말함으로써 노동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바울의 노동관은 노동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과도 일치한다. 예를 들어 황봉환(2003)은 노동을 세 가지 측면으로부터 설명하였다. 첫째, 소명으로서의 노동이다. 즉 노동이란 명령된 것이며, “각각 다른 생활방식에 따라 다른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봉사로서의 노동인데, “다른 사람들의 땀에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인류에게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게으름뱅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한다. 셋째, 청지기적 노동이며, “이 세상에 천하고 더러운 일이란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이다”라고 말한다.

기독교의 노동윤리를 논의할 때 켈빈(John Calvin)만큼 중요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막스 베버는 켈빈주의가 근대 자본주의 형성에 끼친 지대한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베버에 따르면 켈빈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예정설인데, “그 당시에, 그리고 대체적으로 현재에도 가장 특징적인 칼뱅주의의 교리는 예정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Weber, 1920: 86). 베버가 놀랐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상인 예정설로부터 세속적인 직업노동의 개념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Weber(1920: 95)는 “수수께끼같이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그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개념에 숨어 있었다. 구원이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인데, 그것을 확신하기 위한 가장 탁월한 수단이 부단한 직업노동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즉 부단한 직업노동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의서(2014)에 따르면, 켈빈의 예정설에서 노동은 성화되는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결국 노동이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내주하는 예수님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베버의 분석에서 더욱 더 흥미로운 것은 켈빈주의가 합리성을 긍정하였으며, 그 점에서 애덤 스미스(Adam Smith)와 통한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이는 여러 점에서 애덤 스미스의 유명한 분업찬양을 상기시킨다. 직업의 전문화는 노동자의 숙련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노동성과를 양적 질적으로 증대시키며,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복지와 동일한 보편적 복지(Common best)에 봉사한다는 것이다(Weber, 1920: 143).” 즉 Weber(1920: 144)는 “노동 그 자체가 아니라 합리적인 직업노동이 바로 신이 원하는 바이다”라고 이해하였다.

베버의 이러한 해석은 제임스 뷰캐넌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당연한 것이지만, 더 많이 일하면 시장에서 더 많은 보수나 임금을 받을 것이므로 노동을 제공한 사람은 더

큰 이득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더 많이 일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다른 사람에게도 이득이 될까? Buchanan(1994)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일하면 그것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장규모의 확대는 전문화와 분업을 촉진시키고 이로 인해 경제가 전반적으로 윤택해지고 번영한다는 것이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기독교 윤리로 간주될 수 있는 그의 견해는 애덤 스미스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한 나라의 경제 생산력의 주요 원천은 노동의 분업 또는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미스 자신이 확신했듯이 비록 사람들은 경제가치를 생산해내는 능력은 서로 다르긴 해도 그들은 전문화를 통해, 즉 그들이 서로 다른 일을 맡아 분업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의 생산성을 현저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는 집단에 의해 다른 생산물을 산출해내며, 또 이 다른 생산물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경제세계는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이다(Buchanan, 1994: 31).”

노동에 대한 기독교윤리는 성경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켈빈에 의해 근대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주목할 것은 켈빈이 합리적 노동을 지지했다는 점이며, 그 점에서 애덤 스미스와 연결될 수 있었다. 이러한 켈빈주의의 견해는 현대적인 해석에서도 계승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20세기 뷰캐년의 노동윤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켈빈의 노동관은 기독교경제윤리의 발전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성경적 근거에 기초하되 합리성을 긍정함으로써 근대적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베버가 자본주의 형성에 대한 켈빈주의의 지대한 영향을 발견하였던 것은 적절한 것이었으며, 그것의 의미는 현재에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 수 있다.

2. 저축의 윤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마 6:19, 20) 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눅 12:21)는 저축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저축이란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에 따른 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정운(2006)은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말한다. 이를 저축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며, 성경의 전반적인 언급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성경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창 41:34-35). 잠언의 두 말씀도 그러하다. “개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잠 6:6-8).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잠 21: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 이유는 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쥔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신 23:19, 20). 이처럼 이자수취는 금지되었다. 하지만 형제로부터의 이자수취와 타국인으로부터의 이자수취를 구분하였고 타국인으로부터의 이자수취는 허용되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어쨌든 중세 유럽에서 오랜 동안 이자수취는 금지되었다. Bieler(1985)에 따르면 77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몇 가지 예외가 허용되었지만) 이자가 금지되었고, 1천년이 지난 16세기가 되어서야 이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즉 16세기 스페인의 필립 2세는 12%를 초과하지 않는 이자는 합법적인 것으로 허용하였고, 영국의 헨리 8세도 1545년 이자율상한을 10%로 정하고 그 이하의 이자는 허용하였다. 16세기에 이르러 이자를 허용하되 과도한 이자, 즉 고리대를 금지하는 식이었다.

이자율의 허용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자에 대한 켈빈의 견해는 주목할 만하다. 황봉환(2003)에 따르면 켈빈은 사유재산의 소유와 권리를 인정했다고 한다. 특히 켈빈은 성경적 근거 위에서 물질적 재산은 하나님 자신의 섭리를 완

성시키는데 사용하는 도구라고 가르쳤다. 따라서 켈빈이 보기에 이자 자체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 아니었다. 황의서(2014)의 해석에 따르면, 돈은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생산적인 것이며, 이자를 금지하면 돈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사람과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물론 켈빈이 고리대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고리대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자율상한제를 지지하였다. 실제로 켈빈이 활동하던 시기의 제네바에서는 이자율상한이 1547년 년 5%, 1557년에는 년 6.67%이었다고 한다(황의서, 2014).

돈의 생산적 활용이라는 개념은 합리적 노동이라는 개념만큼이나 근대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제거됨으로써 저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제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유럽사회에서 돈, 저축, 이자에 대한 혁신적인 해석이 널리 확산되었다. 예를 들면 존 웨슬리의 경제관에서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황의서(2014)는 존 웨슬리의 경제윤리를 세 가지 실천강령으로 요약하고 있다. 웨슬리는 “첫째, 가능한 한 많은 수입을 추구하라, 둘째,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라, 셋째,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주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저축윤리의 현대적 해석은 뷰캐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케인즈의 ‘절약의 역설’을 비판하였는데, 소비는 미덕이고 저축은 악덕이라고 말하는 절약의 역설은 윤리학적으로 아주 잘못된 견해라고 주장하였다. Buchanan(1994: 79)은 “1930년대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케인즈적인 해설은... 저축행동을 심지어 불명예스러운 행동으로 간주하여 사회분위기마저 흐려놓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뷰캐넌은 저축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보았다. 그 이유는 저축이 생산적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시장규모의 확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시장규모의 확대는 전문화와 분업을 촉진시키고 이로 인해 경제가 전반적으로 윤택해지고 번영한다는 것이다.

고리대의 폐해는 이자와 저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축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켈빈의 견해는 근대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물질적 재산을 긍정하였고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섭리를 완성시키는데 필요한 도구라고 보았다. 또한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돈도 생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노동윤리만큼이나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견해는 뷰캐넌의 윤리학에서 계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오늘날에도 유효한 윤리적 명제가 된다.

3. 나눔의 윤리

나눔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로 말함으로써 노동을 통하여 많은 것을 벌어들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혁배(2012)는 나눔이 무조건적이고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 6:4)는 나눔의 무조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III. 자료 및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는 기독교인의 노동, 저축, 나눔의 윤리가 어떻게 실천되어 왔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종교활동가구와 비종교활동가구의 경제활동을 비교하였고,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신분류)의 마이크로데이터(MDSS)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의 표본기간은 1990~2014년 동안의 25년이다. 표본가구수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2002년 6,121가구로 가장 적었으며 1993년 15,222가구로 가장 많았다. 표본기간 전체 동안 표본가구수는 총 250,078가구에 이른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별 설문조사결과이다. 조사항목은 세대특성에 관한 항목 99개, 소득에 관한 항목 48개, 지출에 관한 항목 559개이다. 지출 항목 중에 ‘비영리단체로 이전’이 있으며, 그 하위 항목에 ‘종교기부금’이 구분되어 있다. 종교기부금에는 종교적 헌금(십일조, 시주), 교회, 성당, 사찰 신축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종교에 대한 조사항목은 없다. 즉 기독교가구를 따로 구분할 수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종교기부금이 있는 가구를 종교활동가구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통계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종교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기독교가구에 대한 측정치로 종교활동가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한계는 있으므로, 본 연구는 종교활동가구와 비종교활동가구의 노동, 저축, 나눔의 차이를 분석한 셈이다. 노동의 측정치로는 소득, 가장 고용률, 그리고 저축의 측정치로는 저축률, 끝으로 나눔의 측정치로는 비종교단체기부를 이용한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에서 조세, 연금, 사회보장, 이자비용, 이전지출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주택의 경우 발생하는 귀속임료(imputed rent)를 소득에 포함하였다. 귀속임료는 자가주택, 전세주택, 보증부월세주택의 경우 제공되는 월세평가액을 말한다. 한편 가장 고용률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장의 취업 여부를 제공하므로 이를 이용하였다.

저축률은 저축을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저축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를 구해야 하는데 소비는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을 이용하되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첫째, 박대근·이창용(1997)이 정리한 바와 같이 Mace의 방식을 이용하여 내구재를 구분하였고 내구재 소비의 일부를 저축으로 간주하였다¹⁾. 즉 내구재소비의 1/2만을 소비로 간주함으로써 그 나머지 1/2은 저축으로 간주하였다. 둘째, 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가주택, 전세주택, 보증부월세의 경우 가계동향조사가 제공하는 월세평가액을 귀속임료로 간주하여 소비에 포함하였다. 이와 같이 소비를 구한 후, 앞에서 구한 소득에서 소비를 차감하여 저축을 구한다. 따라서 저축률은 저축을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

비종교단체기부는 가계동향조사 지출 항목 중 ‘비영리단체로 이전’의 하위항목으로 조사되고 있는 회비 및 기타기부금을 이용하였다. 이 항목에는 단체회비(노조, 종중, 친목회, 상호회 등), 사회단체(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꽃동네 등), 기타(월드비전,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구세군 등)에 대한 기부가 포함된다. 물론 이 항목 모두를 나눔의 성격을 지닌 기부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가계동향조사가 세부항목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비 및 기타기부금 전체를 비종교단체기부를 간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변수 역시 대응변수이다.

1) Mace의 방식과 박대근·이창용(1997)의 방식을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주거·수도·광열비 중 주택유지 및 수선,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중 가구 및 조명, 실내장식, 가전 및 가정용기기, 가정용공구 및 기타, 보건 중 보건의료용품 및 가구, 교통 중 자동차구입, 기타운송기구 구입, 통신 중 통신장비, 오락·문화 중 영상음향기기, 사진광학장비, 정보처리장치, 오락문화내구재, 악기기구, 기타 상품·서비스 중 이미용기기, 시계 및 장신구를 내구재로 분류한다.

2. 연구방법

IV절에서는 종교활동의 차이가 주요 변수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종교활동가구와 비종교활동가구의 여러 변수가 같았는가를 검정한다. 주요 변수는 소득, 저축률, 가장고용률, 비종교단체기부이고 이외에 이를 설명하기 위한 변수는 가장 학력, 저축, 가구원수, 고용가구원수이다.

가장고용률, 가장 학력, 가구원수, 고용가구원수에 대해서는 평균을 비교할 것이므로 평균이 같았는가를 검정하면 된다. 따라서 잘 알려진 t검정을 이용한다. 하지만 소득, 저축률, 비종교단체기부, 저축에 대해서는 이상관측치(outliers)를 고려하여 중앙값을 비교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중앙값이 같았는가를 검정해야 한다. 중앙값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Mood의 검정을 이용한다.

Mood의 중앙값 검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종교활동가구를 A라 하고 비종교활동가구를 B라고 하자. 두 가구 모두의 중앙값이 M이라 할 때 아래와 같이 조건부표(contingency table)을 구한다.

구분	표본 A	표본 B
# < M	O_1	O_3
# > M	O_2	O_4

〈표1〉 조건부표

종교활동가구 A의 경우 O_1 는 M보다 값이 큰 표본의 수이고, O_2 는 M보다 값이 작은 표본의 수이다. 또한 비종교활동가구 B의 경우 O_3 는 M보다 값이 큰 표본의 수이고, O_4 는 M보다 값이 작은 표본의 수이다. 종교활동가구 A와 비종교활동가구 B는 총 $O_1+O_2+O_3+O_4=N$ 개이다.

다음과 같이 기대빈도수(expected frequency)를 구한다.

구분	표본 A	표본 B
# < M	$E_1=(O_1+O_2) \times (O_1+O_3)/N$	$E_3=(O_3+O_4) \times (O_1+O_3)/N$
# > M	$E_2=(O_1+O_2) \times (O_2+O_4)/N$	$E_4=(O_3+O_4) \times (O_2+O_4)/N$

〈표2〉 기대빈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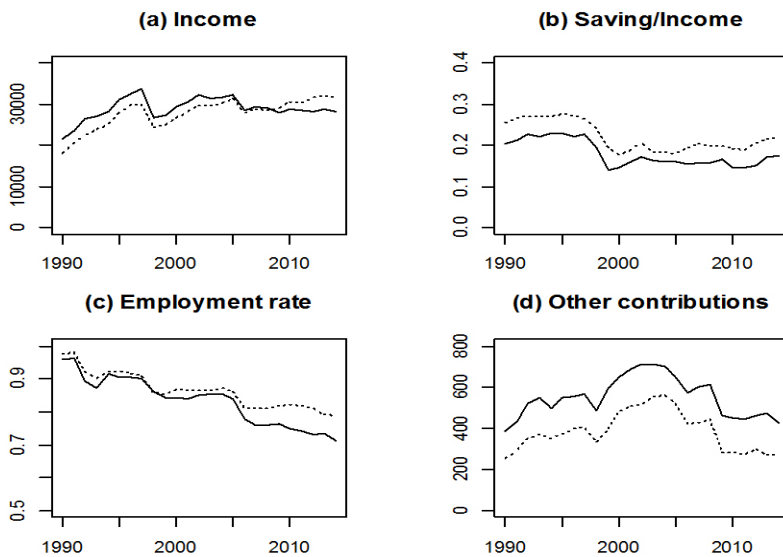
이로부터 검정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chi^2(1) = \sum_{i=1}^4 \frac{(O_i - E_i)^2}{E_i} \tag{1}$$

Mood 검정통계량의 자유도는 1이고, 95% 유의수준에서 3.84이다.

IV. 노동, 저축, 나눔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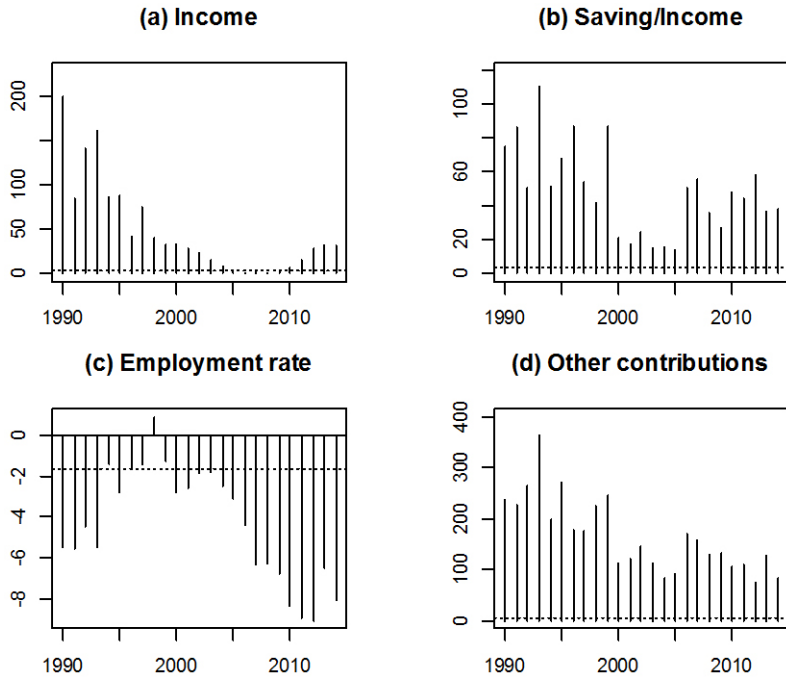
본 연구는 노동, 저축, 나눔의 3가지만을 실증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3가지 문제는 선호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그 의의가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 사회적인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들은 윤리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기독교가 노동, 저축, 나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실증연구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기독교인의 자료를 따로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 (a) 소득과 (d) 기타기부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14년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값이며 가구별 자료의 연도별 중앙값을 나타낸다(단위: 천원). 또한 (b) 저축률과 (c) 고용률은 가구별 자료의 연도별 평균을 나타낸다(단위: 백분율).

[그림1] 소득, 저축률, 가장고용률, 비종교단체기부의 추이

노동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소득과 고용률을 이용하였고, 저축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저축률(저축/소득)을 이용하였으며, 나눔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비종교단체 기부를 이용하였다. 종교활동가수와 비종교활동가수의 추정치가 [그림1]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를 설명하기 위한 변수 또는 보조변수로는 가장의 학력, 저축, 가구원수, 고용된 가구원수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3]에 제시되어 있다.



- 주1) (a) 소득과 (d) 기타기부는 Mood의 방법을 이용하여 종교활동가수와 비종교활동가수의 연도별 중앙값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이며, (b) 저축률과 (c) 고용률은 t검정을 이용하여 종교활동가수와 비종교활동가수의 연도별 평균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이다.
- 주2) 각 그림에서 수평의 점선은 95% 유의수준의 검정통계량을 나타낸다. 따라서 검정통계량 추정치가 실선의 값을 벗어날 경우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즉 종교활동가수와 비종교활동가수의 차이는 유의하다.

[그림2] 소득, 저축률, 가장고용률, 비종교단체기부의 검정결과

[그림1]과 [그림3]은 연도별로 각 변수의 대표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선은 종교활동가수의 값을 나타내고 점선은 비종교활동가수의 값을 나타낸다. 실선과 점선을 비교

하면 종교활동에 따른 가구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소득, 나쁨, 저축의 경우 극단적인 값이 많기 때문에 그림에서 제시된 것은 중앙값이며,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14년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값을 제시하였다. 한편 고용률, 저축률, 학력, 가구원수, 고용된 가구원수의 경우 평균을 제시하였다.

한편 [그림2]과 [그림4]는 종교활동가구와 비종교활동가구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소득, 저축, 나쁨의 경우 Mood의 방법을 이용하여 중앙값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이며, 고용률, 저축률, 학력, 가구원수, 고용된 가구원수의 경우 t검정을 이용하여 평균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이다. 각 그림에서 수평 점선은 95% 유의수준을 나타내므로 검정통계량 추정치가 실선의 값을 벗어날 경우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즉 종교활동가구와 비종교활동가구의 차이는 유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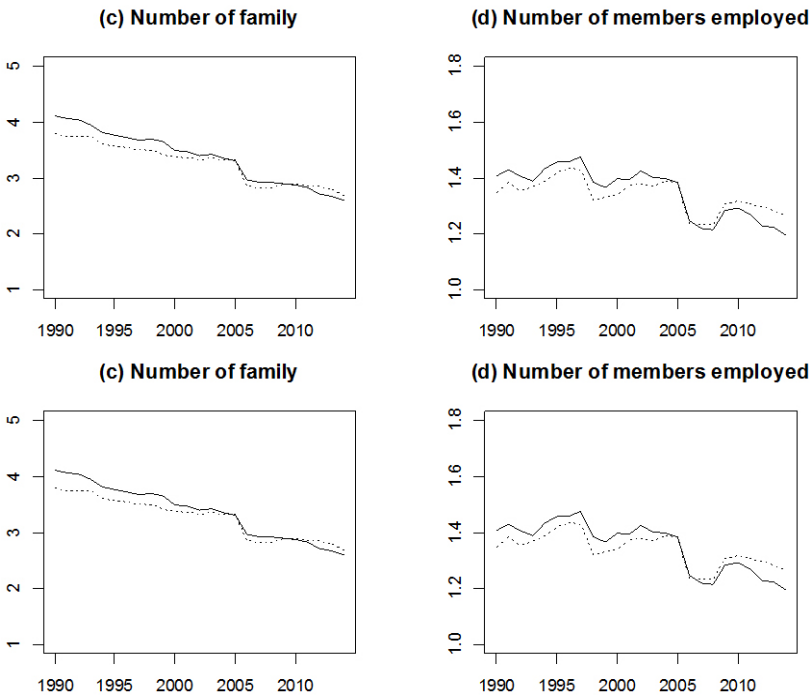
우선 노동을 나타내는 변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1]의 (a)를 보면 가구별 소득의 추이는 매우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1990년대에는 종교활동가구의 소득이 비종교활동가구의 소득보다 많았지만 2005~2009년을 거치면서 역전되었고, 2010년 이후에는 비종교활동가구의 소득이 종교활동가구의 소득보다 많아졌다. 이러한 특징은 [그림1] (c)의 가구별 고용률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물론 표본 전기간에 걸쳐 고용률은 종교활동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며, 비종교활동가구의 고용률이 종교활동가구의 고용률보다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90년대만 하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 그 차이가 커지기 시작하였고 비종교활동가구의 고용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 2014년에는 비종교활동가구의 고용률이 78.9%인 반면 종교활동가구의 고용률은 71.3%에 그쳤다.

소득과 고용률을 이용할 때 종교활동가구와 비종교활동가구의 추이에는 매우 뚜렷한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비종교활동가구의 소득과 고용률이 종교활동가구의 것보다 더 많아졌거나 높아졌다는 점이다. 소득과 고용률이 노동활동을 나타내는 변수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결과는 비종교활동가구의 노동활동이 종교활동가구의 것보다 더 활발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득과 고용률의 경우 종교활동가구와 비종교활동가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 (a) 소득의 경우 두 집단의 연도별 중앙값의 차이에 대한 검정결과를 보여준다. 2004년까지는 종교활동가구 소득의 중앙값이 비종교활동가구의 것보다 높았으나 2005~2009년에는 차이가 없어졌으며 2010년 이후에는 오히려 비종교

활동가구 소득의 중앙값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한편 [그림2] (c) 고용률의 경우 두 집단의 연도별 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정결과를 보여준다. 1990년대 중후반에는 두 집단의 고용률 평균이 달랐다고 보기 어렵지만 2000년 이후 비종교활동가구의 평균이 높았으며 그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다.

이 결과는 종교활동을 하는 가구의 노동활동이 더 활발하다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소득을 노동활동의 측정치로 보았을 때, 2000년대 초반까지 종교활동가구의 노동활동이 더 활발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비종교활동가구의 노동활동이 더 활발했다. 가구의 고용률을 노동활동의 측정치로 보았을 때, 전 기간에 걸쳐 비종교활동가구의 노동활동이 더 활발하였고, 특히 2005년 이후에는 그 격차가 더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종교활동가구의 노동활동이 더 활발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정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a) 가구주학력(단위: 명), (c) 가구원수(단위: 명), (d) 고용가구원수(단위: 명)는 연도별 평균을 나타내며, (b) 저축(단위: 천원)은 연도별 중앙값을 나타낸다.

[그림3] 가장 학력, 저축, 가구원수, 고용가구원수의 추이

저축률의 추이는 더 놀랍다. [그림1]의 (b)를 보면 종교활동가구의 가구별 저축률 중앙값은 비종교활동가구의 것보다 전 기간에 걸쳐 낮았다. 표본 전 기간 동안 종교활동가구의 가구별 저축률 중앙값은 18%이었지만, 비종교활동가구의 가구별 저축률 중앙값은 22.4%이었다. 그리고 종교활동가구와 비종교활동가구의 저축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의 (b)를 보면 전 기간에 걸쳐 종교활동가구와 비종교활동가구의 저축률 중앙값은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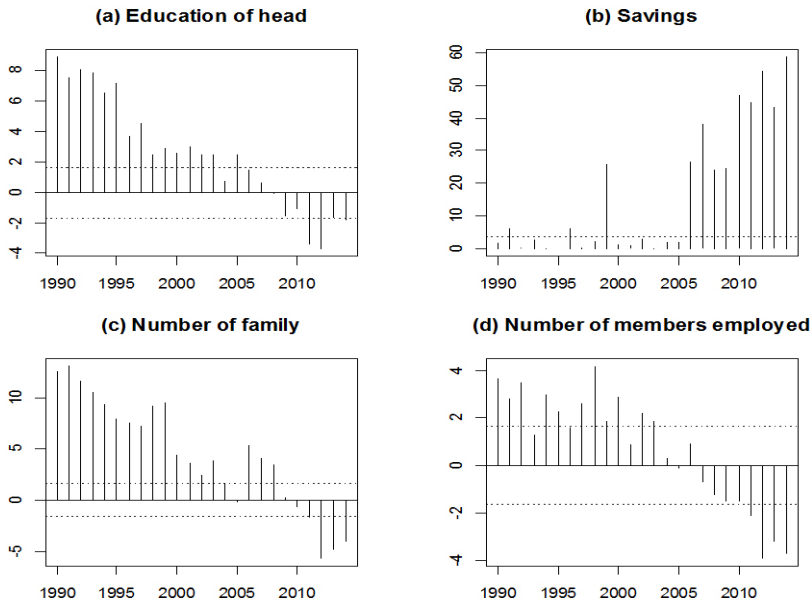
저축률 대신 저축을 이용하면 결과는 조금 달라진다. [그림3] (b) 저축을 보면 2005년까지 종교활동가구와 비종교활동가구의 가구별 저축 중앙값은 비슷하였다. 하지만 2006년 이후에는 종교활동가구의 가구별 저축 중앙값이 뚜렷하게 낮아졌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림4]의 (b)를 보면 2005년까지는 종교활동가구와 비종교활동가구의 저축률 중앙값이 달랐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1991년, 1996년, 1999년의 경우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시기에 국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006년 이후에는 두 집단의 저축률 중앙값은 유의하게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종교활동을 하는 가구의 저축활동이 더 활발하다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저축률을 이용할 때, 전 기간에 걸쳐 비종교활동가구의 저축활동이 더 활발하였다. 또한 저축을 이용할 때, 2005년까지 종교활동가구의 저축활동이 비종교활동가구의 것과 비슷하였으나 2006년 이후에는 비종교활동가구의 저축활동이 더 활발했다. 결국 종교활동가구의 저축활동이 더 활발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정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져 왔다.

노동과 저축과 비교할 때 나눔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관찰되었다. [그림1] (d)의 비종교단체 기부를 보면, 전 기간에 걸쳐 종교활동가구의 기부 중앙값이 비종교활동의 것보다 많았던 것이다. 한편 [그림2]의 (d)를 보면 두 집단의 중앙값 차이는 전 기간 동안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얻은 결과에 따르면 종교활동가구의 소득과 저축이 많았다고 보기 어려웠으므로 종교활동가구의 기부가 많았다는 결과는 종교활동이 미치는 영향의 성격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종교활동가구와 비종교활동가구의 중앙값 차이가 작지 않았고, 표본기간 동안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1990년 종교활동가구와 비종교활동가구의 기부는 각각 386,013원과 255,020원으로 종교활동가구의 기부가 1.51배 더 많았다. 이후 격차가 감소하여 2005년에 차이가 가장 작았지만

각각 649,946원과 521,519원이었으므로 종교활동가구의 기부는 1.24배 더 많았던 셈이다. 이후 두 집단의 격차는 다시 확대되었다. 2014년에는 각각 425,760원과 270,240원으로 종교활동가구의 기부가 1.57배 더 많았다.

노동, 저축, 나눔이라는 세 가지 경제윤리를 기준으로 할 때 종교활동가구와 비종교활동가구의 행동에는 매우 뚜렷한 특징이 관찰된 셈이다. 첫째, 노동과 저축의 경우 종교활동가구가 비종교활동가구보다 더 활발하였다고 볼 수는 없었다. 소득과 저축의 경우 1990년대에는 종교활동가구의 값이 더 많았지만 2000년대 이후 역전되었다. 또한 고용률과 저축률의 경우 표본 전 기간에 걸쳐 종교활동가구의 값이 오히려 작았고 비종교활동가구와의 격차도 확대되었다. 하지만 나눔의 경우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즉 종교활동가구의 비종교단체 기부가 더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물론 비종교활동가구와의 격차가 2000년 초반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후 계속 확대되어 1990년대 초반 수준의 격차를 최근에도 유지하고 있다.



주1) (a) 가구주학력, (c) 가구원수, (d) 고용가구원수는 t검정을 이용하여 종교활동가구와 비종교활동가구의 연도별 평균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이다. (b) 저축은 Mood의 방법을 이용하여 종교활동가구와 비종교활동가구의 연도별 중앙값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이다.

주2) [그림2]의 주2)와 같음.

[그림4] 가장 학력, 저축, 가구원수, 고용가구원수의 검정결과

이러한 특징은 [그림3]을 살펴보다라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3] (a)에는 가장의 학력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항상소득(permanent income)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알려진 변수이다(Attanasio, 1994). 가장의 학력은 전문대학교 이상 졸업자의 경우 1의 값을 갖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변수로 [그림3] (a)에는 두 집단의 연도별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2003년 이전에는 종교활동가구의 가장 학력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비종교활동가구의 가장 학력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림4] (a)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학력의 추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종교활동가구와 비종교활동가구의 소득 추이와도 비슷한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특이한 것은 [그림3] (c)에 제시된 가구원수의 추이이다. 저축이론에서 가구원수는 부양비(dependency ratio)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즉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저축이 적거나 저축률이 낮다는 것이다(Deaton, 1992). 그런데 [그림3] (c)에 따르면 가구원수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2003년 이전에는 종교활동가구의 가구원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비슷해졌고 2012년 이후에는 오히려 비종교활동가구의 가구원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림1] (b)의 결과는 의외의 것이다. 즉 부양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요인이 두 집단의 저축률 차이에 작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그림3] (d)에 제시된 고용가구원수의 추이를 보면, 소득과 가장의 고용률과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3년 이전에는 종교활동가구의 고용가구원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비슷하여졌고 2011년 이후에는 오히려 비종교활동가구의 고용가구원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림4]의 (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교활동가구의 경제적 행위는 노동, 저축, 나눔에서 매우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다. 노동과 저축의 경우 종교활동가구가 비종교활동가구보다 더 활발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 종교활동가구의 소득과 저축은 1990년대에 더 많았지만 2000년대 이후 역전되었고, 종교활동가구의 고용률과 저축률은 표본 전 기간에 걸쳐 낮았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비종교활동가구와의 격차도 확대되었다. 하지만 종교활동가구의 비종교단체 기부는 전 기간에 걸쳐 더 많았고 그 격차는 꾸준히 유지되어 왔다. 노동과 저축이 활발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종교활동가구에게서 왕성한 나눔활동이

관찰되었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한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뷰캐넌을 따라 신앙이 선호체계를 좌우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기독교인의 노동, 저축, 나눔이 더 활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었는데, 이 가설은 성경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다. 즉 “가능한 한 많은 수입을 추구하라,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라,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주라”는 웨슬리의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실증분석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가구주의 고용률, 고용가구원수를 노동활동의 측정치로 이용할 때 종교활동가구의 노동활동이 더 활발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 둘째, 저축률과 저축을 측정치로 이용할 때 종교활동가구의 저축활동도 활발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 셋째, 나눔의 경우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즉 종교활동가구의 비종교단체 기부가 더 활발했으며, 비종교활동가구와의 격차가 2000년 초반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후 계속 확대되어 최근에는 1990년대 초반 수준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종교활동이 선호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종교활동가구의 노동, 저축, 나눔이 더 활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하지만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종교활동이 노동과 저축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눔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나눔의 윤리만이 종교활동에 의존하였던 셈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활동 여부가 노동, 저축, 나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 역의 인과관계도 있을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노동 및 저축활동과 종교활동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를 노동과 저축활동이 활발한 가구의 종교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결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의식을 제공한다. 둘째, 본 연구가 이용한 가계동향조사의 자료는 종교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통계분

석결과가 기독교인의 경우에 나타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 문제들이 향후 연구에 의해 다루어지기를 기대하여 본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박진근 편 (1998). 『경제학 대사전』. 서울: 박영사.
- 강원돈 (2005). “서양 실천철학의 노동 개념에 대한 기독교 노동윤리의 평가.” 『신학연구』, 47. 147-172.
- 박대근·이창용 (1997). “한국의 저축률 추이에 관한 연구: Synthetic Cohort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 박정윤 (2006). “성경으로 본 행복한 부자.” 『로고스경영연구』, 4(2). 49-74.
- 이재울 (2005). “기독교적 노동윤리 소고.” 『사회과학논총』, 24(1). 169-185.
- 이혁배 (2012). “성서적 관점에서 본 나눔.” 『신학과 실천』, 453-473.
- 황봉환 (2003). 『기독교 경제윤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황희서 (2003). 『경제와 신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_____ (2014). 『경제윤리』. 서울: 무역경영사.
- Attanasio, O. P. (1994). “Personal Saving in the United States.” In Poterba, J.M.(Ed.)(1994).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Household Sav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ieler, Andre (1985).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John Knox Press. 홍치모 역 (1985). 『칼빈의 경제윤리』. 서울: 성광문화사.
- Buchanan, James M. (1994). *Ethics and Economic Progress*,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이필우 역 (1996). 『윤리와 경제적 진보』.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Deaton, A. (1992). *Understanding Consumption*. Oxford: Clarendon Press.
- Weber, Max (1920).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J.C.B. Mohr: Tübingen. 박성수 역 (2004).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문예출판사.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ethics of working, saving, sharing

Jong-In Yoon (Baekseok University)

The ethics of working, saving, sharing play very important roles in the modern economy. We think that the Bible and literatures about the Christian economic ethics support behaviors of working, saving, sharing. For example, John Wesley said that the Christian should work more, save more, give more.

This research tried to analyze working, saving, sharing behaviors of the Christian. To do this, we use the micro-data(MDSS) from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1990 to 2014, but these data does not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religion of households.

Evidences say some meaningful results. First, it is not that religious households have worked more and saved more. Second, it is obvious that religious households have contributed much more than non-religious households for the whole period. The ethics of sharing is effective, but those of working and saving is not.

Key Words: working, saving, sharing, Mood test